



## 4. 겪은 일을 써요

[01~02] 다음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하시오.

“아함! 졸려.”

㉠어제저녁에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온다. 안방으로 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내 동생 용준이가 나를 툭툭 치며 장난을 걸어왔다. 나는 용준이가 또 덤빌까 봐 용준이 손을 잡고 안 놓아주었다. 그러다가 그만 내 눈에 싯덩어리(용준이 머리)가 ‘쿵’ 하고 부딪쳤다.

“아야!”

나는 너무 아파서 눈물을 글썽였다. 그랬더니 용준이가 혼날까 봐 따라 울려고 그랬다. 나는 결코 용준이를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.

“야, 네가 왜 울어?”

그때였다. 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며

“진윤서, 너 왜 동생 울려?”

하고 큰소리를 내셨다.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.

난이도

01 아버지께서 큰소리를 내셨을 때 ‘나’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쓰시오.

---



---

난이도

02 ㉠의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고, 그렇게 고쳐 쓴 까닭을 쓰시오.

---



---



---

난이도

03 다음 문장을 참고하여, ‘결코’, ‘전혀’, ‘별로’와 같은 낱말 뒤에는 어떤 서술어가 어울리는지 쓰시오.

-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
-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 보지 못한 내용이였다.
-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.

---



---

난이도

04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쓸 때 어떤 글감을 정하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를 쓰시오.

- ---
- ---

난이도

05 다음 1, 2, 3에서 한 가지씩을 골라 문장 성분이 호응하는 문장을 만드시오.

1	나는, 준혁이는, 할머니께서는
2	어제, 동생에게, 부지런한 사람이
3	밥을 먹이신다, 화를 낸 것이 아니다

---



---